

오늘은 온라인 어학교실로 경영비자의 취득시 주의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온라인 한국어교실 운영으로 경영비자 취득이 가능할까

オンライン語学教室の経営で経営管理ビザの取得をする際の注意点

온라인 어학 교실의 경영에서 경영 비자 취득을 할 때주의 할 점

1.사무실 설비에 관해 주의할 점

(1) 事務所設備の説明

(1) 사무실 설비의 설명

온라인 어학 교실의 경우, 강사와 학생이 함께 온라인에서 교환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기 위한 "교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사가 사무소 등에 출근해야할 일도 없으며

가정에서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온라인어학교실로 경영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로 할까요 ??

대답은 사무실은 필요하다 ! 입니다.

경영 관리 사무를 집행 위해,회사의 사무 공간이 필요하고, 사무실에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 경영관리비자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총 직원(강사) 는 몇명을 고용 예정이며,

그 중 몇 명이 사무실 근무, 몇명이 재택 근무를 하는지 명확하게 하고 ,

본사 사무실 근무자 분의 인원수에 맞는 사무장비를 구비하고 사진을 촬영 , 첨부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면적도 본사 근무 예정 인원과 비교하여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2.설비투자액 소액인 점에 관해 추가자료 제출

(2) 設備投資額が少額であることをリカバリーする

(2) 설비 투자액이 소액 인 점을 보완하기

온라인 어학 교실에 필요한 설비 투자라고 하면, 교재 또는 교재로 사용 iPad 용 앱 등

이 주입니다.

보통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할 경우

설비에 관해 투자한 금액이 클수록 심사기준이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

온라인 어학교실의 경우 시설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

이럴경우 어떻게 심사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

저희 고객님중에 온라인 어학교실로 경영비자를 받으신경우

보충자료로 온라인 한국어교실 프로그램 제작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기록

강사의 고용통지서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첨부자료는 많이 제출 할 수록 효과적입니다.

3.온라인업무와 실제 사무실 업무의 구별

(3) オンライン上で可能な業務と、本社勤務の必要性との峻別

(3) 온라인에서 가능한 업무 및 본사 근무의 필요성과의 구별

만일 온라인 어학교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했다 !

외국인 강사의 비자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강사가 온라인으로만 강사활동을 해서는 비자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출근하여 꼭 일본현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합당한 이유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한국어교실의 경영과 세무

オンライン語学教室の経営と税務

온라인 어학 교실의 경영과 세무

(1) 매출에 대한 소비세 구분

일본 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후의 소비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결정됩니다.

즉 , 온라인 어학교실의 경우 수강하는 학생의 주소지가 일본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일본에 소비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강자중

일본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여 관리하고 매출을 구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강사에 대한 급여 지급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필요
강사중에도 일본거주자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하게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사회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거주자는 강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강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일본국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불필요하며
일본의 사회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위와같은 사회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에 관한 자료는
당사자인 사원뿐만아니라
온라인 어학교실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분이 경영관리비자로 어학교실을 운영하시는 경우
비자의 갱신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원의 취업비자를 신청 갱신할때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법정조서 합계표의 급여액
결산보고서의 급여액의 차이가 클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입국관리국으로 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직원의 거주지별로 급여목록을 작성해두어
입국관리국의 요구가 있을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럴경우에도 위와같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